

20191098 백승주

1. 프로젝트 초기 컨셉 - 영양제 정보 사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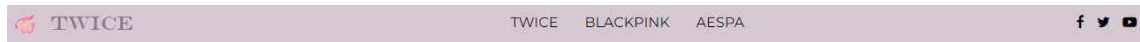
목적 : 시중에 다양한 영양제들이 생겨나고 인터넷 덕분에 그에 관한 정보도 많아졌지만 오히려 너무 선택지가 많아지고 광고들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에게 필요한 영양제를 고르는 것이 어려워졌다

2. 프로젝트 최종 컨셉 - 아이돌 소개 사이트

목적 : 유명한 아이돌들의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멤버들 사진과 함께 멤버에 관련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해당 아이돌 그룹의 앨범들을 한 사이트 내에서 바로 찾아볼 수 있게 계획했습니다.

구성 : 홈 화면, 멤버들 프로필 페이지, 앨범 소개 페이지

3. 디자인



- 네비게이션 bar : 트와이스를 나타내는 로고를 왼쪽에 집어넣고 트와이스를 상징하는 색인 분홍 빛깔을 띠 수 있게 설정함, 메뉴 바는 마우스를 올려놓으면 붉은색으로 변하며 밑줄이 쳐져 반응하도록 했습니다.



- 프로필 : 9개의 아이템들로 구성됨. 마우스를 올려놓을시 반투명한 검은색 박스가 올라오며 해당 인물에 대한 설명을 나타내게 했습니다. 설명 오른쪽에는 인스타그램 버튼을 만들어 인스타그램 연결시킴.



Home Profile Album



- flex 이용 : 화면 크기가 767px보다 작을 때, 768보다 크고 1024보다 작을 때, 1024보다 클 때 세 가지로 나누어 프로필이나 앨범같은 컨텐츠들이 화면을 꽉 차울 수 있게 만듦. 네비게이션의 경우 화면이 작아졌을 때 메뉴들이 밑으로 내려가도록 설정.

4. 어려웠던 것들

- flex를 활용해 앨범 페이지의 오브젝트들을 배치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큰 박스 안에 앨범 표지, 대표곡 유튜브, 수록곡 글 정보들을 담아야 했는데 이 정보들을 배치하고 나서 flex를 활용할 때면 배치가 계속 어그러질 때가 많았습니다.

해결법 : 요소들을 배치하는 코드를 약간씩 바꾸고 계속해서 open with live server 기능을 활용해 이를 눈으로 확인하며 코드를 수정해나갔고 계속해서 시도한 끝에 결국 원하는 기능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5. 다음에 다시 웹페이지를 만든다면?

웹소설에 관련된 웹페이지를 만들고 싶습니다. 평소에 취미로 웹소설을 좋아해 워낙 많이 읽으며 웹소설 플랫폼들에서 좋아할만한 웹소설을 찾는 데에 불편함도 느끼며 그를 해결하는 웹페이지를 만들고 싶습니다.

웹소설 플랫폼들의 불편한 것들

- 서점의 경우 여러 출판사의 책들을 모두 한 곳에서 볼 수 있으나 웹소설은 대부분의 작품들이 독점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해당 플랫폼에서만 그 작품을 볼 수 있다.
- 웹소설 플랫폼의 메인 화면에서 추천해주는 작품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광고로 특정 웹소설의 이용권을 뿌리고 그 프로모션의 결과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의 취향과 맞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 부족한 태그들. 현재 웹소설은 현대판타지, 판타지, 무협, 로맨스판타지, .. 등의 장르로 분류되지만 해당 태그들은 웹소설을 분류하기 너무 부족하다.

웹소설 웹페이지 기능 구상

- 모든 플랫폼 통합
모든 플랫폼들의 웹소설들을 통합해 그 순위를 보여주고 해당 웹소설 썸네일을 클릭하면 해당 플랫폼 링크로 연결되도록 한다.
- 이 달의 웹소설 추천
서점처럼 이 달의 웹소설들을 선정해 메인 화면에 배치해 독자들에게 추천한다.
ex) 재벌집 막내아들 웹소설
- 선택지를 통한 웹소설 추천 시스템
mbti 테스트처럼 '주인공이 성장하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라는 식의 많은 질문들을 통해 그 질문을 토대로 웹소설을 추천해준다.
- 자신과 취향이 일치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웹소설 추천해주는 시스템
좋아하는 소설들을 고르면 목록과 비슷한 소설을 좋아한다고 한 다른 사람들의 목록을 추천해준다.

- 사람들이 직접 만드는 책장

음악 앱에서 사람들이 각자 플레이리스트를 만들듯이 각자 책장을 만들고 해당 리스트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한다.

즉 웹페이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메인 화면 : 내가 만들었던 아이돌 소개 사이트의 프로필 화면과 같은 형식으로 이 달의 웹소설들을 선정해 그 정보들을 볼 수 있게 한다.
2. 랭킹 화면: 플랫폼 상관없이 랭킹 순으로 웹소설들을 나타낸다.
3. 웹소설 추천 시스템: 웹소설 취향 테스트를 통해 웹소설을 추천해주거나 인공지능을 활용해 비슷한 취향을 가진 사람이 어떤 웹소설들을 선호했는지 알려준다.
4. 나만의 책장 시스템 : 음악 어플에서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 공유하듯이 나만의 책장을 만들어 공유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의 책장 목록을 가져올 수 있다..